

“원인을 청정히 하면 결과에 꼬달리지 않아”



‘신행·포교 地圖’바꾼다

〈15〉 위빠사나 수행도량 보리수선원

“화두선 자비관을 거쳐 위빠사나를 만나게 됐습니다. 모두가 장점이 있지만 위빠사나를 만난 후 제 불교관은 분명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불교 또는 수행이라는 것이 막연하고 신비로운 것이지만 됐죠. 하지만 위빠사나 수행을 하고부터는 명확한 로드맵이 생겼어요. 그 안에는 구체적인 수행 방법이 다 설계되어 있으니까 수행에 대한 확신이 생겼죠.”

8년째 보리수선원(선원장 붓다락카파)에서 위빠사나 수행을 하고 있는 정재은(41) 씨는 위빠사나 수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다. 오랜 시간 수행을 하면서 마음을 보는 힘이 커졌다는 그는 위빠사나 수행으로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보리수선원은 1999년 개원 이래 지금까지 8천여명이 다녀갔을 만큼 위빠사나 수행처로 이름이 나왔다. 8월 12일 안거에 들어간 보리수 선원을 찾았다.

안거에 동참한 20여명의 수강생들은 선원장 붓다락카파 스님의 법문을 듣고 있었다. 이날 강의는 테라와다 경전에 근거해 탐진체에 따른 성격적 유형을 나누고 이에 맞는 수행 방법을 알려주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었다.

스님은 “탐욕이 많은 사람은 잘난 척을 하고 외도를 치장하며 불평불만이 많다. 이는 꿀 없는 꽃과 같다. 성냄이 많은 사람은 다른 이의 가치를 경시하며 교만하고 질투가 많다. 어리석은 자는 나태하고 무감각하며 근심이 많다”며 “탐욕은 부정관을 통해 성냄은 자애 수행을, 산만성은 수식관을 통해 고쳐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리수선원은 매년 여름 안거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 매월 1회 8일간 집중 수행을 실시한다. 집중수행은 새벽 4시부터 시작해 밤 10시까지 진행되며 법문 수행 인터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가자들은 집에서 오가며 수행할 수도 있으며 원하는 자에 한해서 선원에서 숙식하며 개인방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스님은 “일반 사찰과 달리 개인방을 제공하는 것은 수행자가 스스로의 힘이 생기지 전까지는 방해받지 않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리수선원은 지난 10년 동안 전국교원연수 프로그램 중 하나로 지정되어 방학 때면 교사들의 수행처로도 각광을 받아왔다. 특히 요즘 교원추락으로 힘들어하는 교사들이 명상을 통해 지혜를 배우고 이를 학생지도에 활용하면서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



보리수선원은 위빠사나 수행처로 정평이 나왔다. 사진은 8월 12일 법회 장면

여름 안거·매월 집중수행 진행 탐욕은 부정관, 성냄은 자비 수행 교원연수프로그램으로도 인기 행복한 가정·사회 만들기 주력

스님은 “방학 동안 교사들이 선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30시간 이수증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한 교사들이 높은 평가 점수를 주고 있다. 이렇게 입소문을 타니 방학을 앞두고 프로그램 신청이 조기 마감 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고 전했다.

스님은 대중들이 의식주 해결에만 매달리지 말고 수행을 통해 세속과 초세속 사이에 균형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수행은 자기자신을 초점으로 하죠. 이를 통해 지혜를 증진시킬 수 있으며 의로움과 고독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수행의 맛을 알면 자신을 즐겁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길

이 곧 선정임을 알고 행복을 찾으려 노력할 것입니다.”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은주 씨(39)는 같은 학교 교사의 소개를 받고 2008년부터 수행을 시작했다. “불교가 나랑 잘 맞는 종교라고 생각을 했지만 기복신앙이라는 느낌이 강해 가까이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대념처경> 수업을 들으며 불교에 강한 호기심을 느꼈죠. 수행을 통해 외부의 감동을 받아들이는 힘이 매우 강해졌어요. 또한 원인을 청정하게 하면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지혜를 얻으니 모든 게 편해졌어요.”

앞으로 보리수선원은 위빠사나 수행을 통해 사회 문제를 좀더 적극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코자 한다. 스님은 “그동안 교도소 재소자, 장애를 중독자, 성매매 여성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앞으로 부부법회 가족 법회 등을 통해 가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대중들에게 알려주고자 한다”고 계획을 전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수행은 평생 함께할 벗”

위빠사나 수행자 박노숙 씨



“선원 개원 때부터 위빠사나를 공부했으니 10년을 훌쩍 넘겼네요. 일상 속에서 순간순간 나를 돌아보니 실생활에 많은 도움이 돼요. 알아차리는 힘이 강해지면서 탐심 성냄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됐죠.”

박노숙 씨(54·사건)가 불교를 알게 된 것은 생활불교를 실천하는 정토회를 다니면서부터다. 초창기 멤버로 열심히 활동했지만 깊은 수행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런 이유로 화두선을 찾아 나섰다.

“코스님 법문을 찾아서 들어보고 유명한 수행처를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화두선은 제가 잘 가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점검 기회가 없어 막연하기만 했죠.”

이런 답답함을 해결해 준 것이 위빠사나다. “그 때까지는 수행이 너무 어렵고 막연하기만 했는데 위빠사나를 하면서 수행이 너무 쉬워졌어요. 내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두니 수행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또 인터뷰를 통해 점심을 받으니까 내 수행의 척도를 가늠할 수 있게 됐죠.”

이렇게 수행을 하니 기쁨과 자애심이 생기고 삼보에 귀의하는 마음이 강해졌다. 또 수행을 통해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선택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혜도 갖게 됐다. “위빠사나는 자에게 주면 사람들과 같이 갈 수 있는 것이 수행임을 가르쳐 주었어요. 예전에는 현실을 놓아버리고 출가를 하는 것이 수행이고 도라고 생각했어요. 제 생활 속에서 늘 함께할 수 있는 벗과 같은 것이 곧 수행임을 늘 명심하고 살고 있습니다.”

정혜숙 기자

서구의 마음수행 현장

〈13〉 미국 하트포드 선센터·마이트리 에이즈 호스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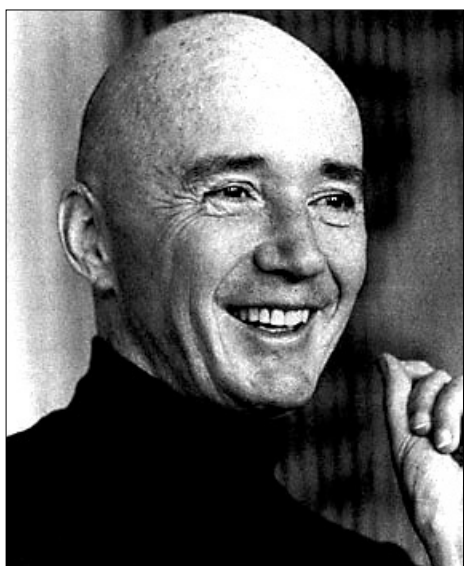
미국 샌프란시스코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게이 친화적인 도시’라는 명성을 쌓아온 지역답게 동성애자와 에이즈 환자들을 위한 선센터와 에이즈 호스피스 요양시설이 있다.

하트포드 선센터(Hartford street zen center, HSZC)와 산하시설인 마이트리 에이즈 호스피스(Maitri Aids Hospice) 요양시설은 세상에서 홀대 받는 에이즈 환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인간답게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고 있다.

불교적 가르침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곳인 만큼 요양시설에서는 최소한의 비용만 받고 환자들을 돌보며, 명상을 할 수 있는 방을 마련하고 스님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해 삶과 죽음에 대한 법문을 하고 있다.

이렇듯 생명의 평등함을 강조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해 성적 소수자를 위한 시설에 공헌한 인물은 스즈키 순류의 제자인 이산 도시(Issan Dorsey, 1933-1990) 스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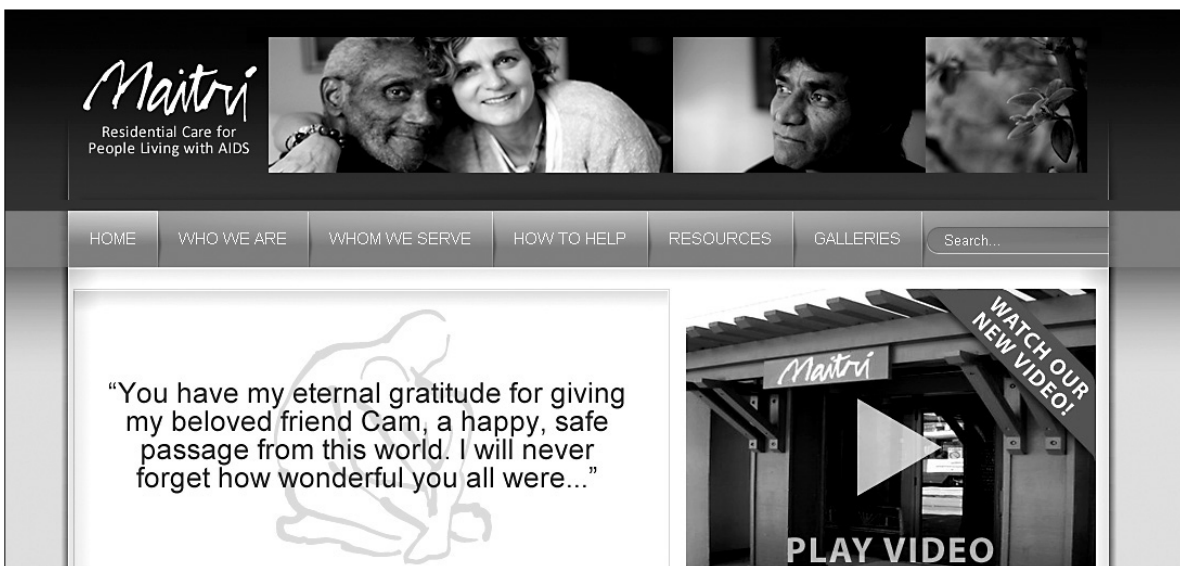
이산 도시 스님은 1933년 캘리포니아 산타 바바라 시에서 10남매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고등학교 재학 중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알았고, 해군에 입대해서도 2년 후 동성애 행위가 적발돼 조기제대를 하게 됐다. 1950년대에 그는 10년간 거리를 떠돌며 마약과 매춘, 그리고 여장을 한 드랙퀸(drag queen)으로의 삶을 살았다. 그러다 1968년 스즈키 순류의 법문을 듣고 샌프란시스코 선원에 거주하며 명상을 하기 시작했다.



이산 도시 스님(좌)과 세상에서 홀대 받는 에이즈 환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인간답게 죽음을 맞이하도록 돕고 있는 마이트리 에이즈 호스피스(Maitri Aids Hospice) 요양시설 홈페이지(우).

동성애자 이산 도시가 설립 1987년 개원...900명 입소 외국인 프로그램 벤치마킹

당시 샌프란시스코 선원은 엘리트의 중산층이 주를 이루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이산 도시는 그들에게 이질적인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의 존재는 선원에



새로 오는 사람들, 또는 불교에 대해 문외한인 초심자에게는 위안이 됐다. 그렇게 선 수행에 적응해 나가던 이산 도시는 1970년 스즈키 순류에게 보살계를 받고, 더 이상 동성애자들과 어울리지 않게 됐다. 1975년에는 리처드 베이커 신사에게 사미계도 받았다.

동성애자를 위한 선센터 설립 1980년 하트포드에 ‘게이 불자 우의회(Gay

Buddhist Fellowship)가 생겼고, 이산 도시는 정신적 지도자 역할을 자처하면서 하트포드 거리 선센터(Hartford street zen center)를 세웠다.

하트포드 선센터는 일본의 소토선불교를 표방하면서 좌선과 마음챙김 등 수행을 지도하고 있다. 이산 이름을 따 이산지(一山寺, Issanji)라고도 불린다. 특히 약물에 중독된 사람들을 위해 회복명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HIV(후천성 면역결핍증후군) 환자를 위해 매주 명상모임을 이끌고 있다.

동성애자와 에이즈 환자 수행처... 회복명상·생사법문

이산 도시 스님은 1985년 건강검진에서 HIV 양성 반응이 나왔으나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에이즈는 우리에게 생명이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일깨워준다. 그러나 에이즈가 치명적이라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만약 에이즈에 걸렸다면 그것은 당신이 살아 있다는 뜻이다.”

생전 법문에서 이 같은 말을 남긴 이산 도시는 그의 발언처럼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샌프란시스코에 에이즈가 퍼지면서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을 때 그는 하트포드 선원 안에 병원을 만들고 에이즈 환자를 월 500달러에 24시간 돌보아 주는 일을 시작 한 것이다. 바로 마이트리 호스피스 시설이다.

마이트리(Maitri) 호스피스 시설은 에이즈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소외 이웃에게 주거·보호 환경을 제공하는 캘리포니아의 유일 시설이다. 산스크리트어로 ‘차비로운 우정’을 뜻하는 곳인만큼 24시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남성·여성 등 소외된 모두에게 열려있다.

1987년 개원한 이래 900명이 넘는 환자들이 마이트리 시설에서 편안한 임종을 맞이했다.

마이트리 호스피스 시설은 에이즈 환자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함을 인정받아, 인도·네덜란드·덴마크·일본 등이 시설의 프로그램을 벤치마킹 하고 있다.

이나는 기자 oasis1983@hyunbul.com

“(주)마루티에스와 함께하는 불교성지 순례 프로그램”

도반기행 “道伴紀行”

“道伴紀行” 불교성지 순례일정

1. 인도 / 네팔 불교성지 순례 8일 (인도양곡)

▶ 인도 / 네팔 불교 7대성지를 따라 순례하는 일정 ◀
: 인천 - 델리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룸비니(탄생지) - 쿠시나카르(열반지) - 바이샬리(2차불교결정)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 - 보드가야(성도지)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델리 - 인천

2. 인도 / 네팔 불교성지 순례 12일 (대한양곡)

▶ 국적기를 이용하여 인도 / 네팔 불교성지를 순례하는 일정 ◀
: 인천 - 봄바이 - 엘로라 / 아잔타(불교석굴) - 델리(국립박물관 - 진신사리)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보드가야(성도지)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 - 바이샬리(2차불교결정) - 쿠시나카르(열반지)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룸비니(탄생지) - 카트만두(스와야ம்ப우나트) - 인천

3. 인도 / 네팔 / 스리랑카 불교성지 순례 15일 (대한양곡)

▶ 국적기를 이용하여 네팔 / 인도 / 스리랑카의 불교성지와 핵심지역을 순례하는 대장정 일정 ◀
: 인천 - 카트만두(스와야ம்ப우나트) - 룸비니(탄생지)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쿠시나카르(열반지) - 바이샬리(2차불교결정)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 - 보드가야(성도지)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델리 - 콜롬보 - 아누라다푸라(스투파 / 보리수) - 시가리야(시가리야사채) - 플론나루와(고대불교도시) - 담볼라(불교석굴) - 캔디(불치사 - 부처님 치사리) - 누와라에리아 - 콜롬보 - 인천

*상기일정은 항공사 및 해외의 변동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도반기행 포괄 및 특전사항

- 1 국제선 / 국내선 항공권 포함 / 유류할증료 / TAX
 - 2 구간별 한식조리대 동행 및 한식 제공
 - 3 전일정 가이드/기사/한식주방팀 포함
 - 4 인도/네팔/스리랑카 비자 대행서비스 포함
 - 5 전일정 4성 혹은 5성급 호텔 이용
 - 6 전일정 불교성지 전문 가이드 동행
 - 7 인도 다라질링 차(차) 1인 1박 증정
 - 8 전일정 매일 1인 2명 생수 증정
 - 9 바라나시 갠지스강 꽃등(燈) 제공
 - 10 여행자보험 포함
- *개인경비는 (전화, 개인적인 팁, 카메라 등) 불포함*

◀ 8대 佛教聖地 지역 안내 ▶

- 1 보드가야(Bodhgaya): 불교 제1성지라 불리며,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成道地
- 2 사르나트(Sarnath): ‘초전법륜지’라 불리며 부처가 깨달음을 얻고나서, 첫 설법을 하신 곳, 佛·法·僧 불교의 3寶가 시작된 곳.
- 3 스라바스티(Sravasti): 부처가 24회 안거를 보낸 ‘기원정사’가 있는 곳으로, 금강경/능엄경/원각경 등을 설법하신 곳.
- 4 라즈기르(Rajgir): 불교 교단 최초의 절(寺) ‘죽림정사’와 부처가 법화경을 설법하셨던 영취산(영취산)이 있는 곳.
- 5 바이샬리(Vaishali): 부처가 반야사상 ‘유마경’을 설법하신 곳, 원왕봉밀(猿王奉蜜)장소에 아쇼카왕(전륜성왕)이 석주를 세운 곳.
- 6 쿠시나카르(Kushnagar): 부처가 열반에 든 곳. ‘모든 현상은 변한다. 게으름 없이 정진 할 것이다’라는 마지막 말씀을 남긴 곳.
- 7 룸비니(Lumbini): 부처 탄생지 마이테비 부인 사원과 구름당이 있는 곳.
- 8 상카시아(Sankasya): 부처님이 도리천에 올라 어머니 마야데비를 위해 법을 설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곳.



INDIA

Find what you seek

Incredible India



서울시 중로구 관철동 청계천로 55, 1002호 (110-111)
대표이사: 김영권 | 사업자등록번호: 101-86-38540

전화 02)733-3155 / 팩스 02)6008-0096
이메일: maru@maruts.co.kr